



6. 다음의 두 그림을 모두 활용하여 글을 쓰고자 한다. 연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절과 예의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입니다.
- ②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 ③ 기본적인 생활 습관은 꼭 지켜야 할 당신의 얼굴입니다.
- ④ 교통법규 지키기는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입니다.
- ⑤ 노인 공경의 자세는 소중히 보존해야 할 우리의 자산입니다.

7. 다음은 '부모 자녀 간 세대 갈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고자 수집한 설문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세대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상황

순위	부 모	자 녀
1	돈의 가치를 모르고 험하게 쓸 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할 때
2	모르는 말이나 은어를 써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웃차림이나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잔소리할 때
3	웃차림이나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들 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라고 강조할 때
4	공부의 중요성을 모를 때	고생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돈쓰는 것을 지적할 때

ㄴ. 갈등이 생길 때의 행동    ㄷ. 갈등 해결을 위한 방법

행동	부모 (%)	자녀 (%)
짜증이나 화를 낸다	34.2	23.9
무시하거나 대화를 포기한다	49.2	32.4
갈등 해결방법을 생각한다	16.6	43.7

방법	부모 (%)	자녀 (%)
그 자리에서 직접 앞으로 한다	53.2	35.6
편지, 문자, 이메일을 보낸다	24.7	51.7
파문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22.1	12.7

- ① ㄱ : 부모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녀는 학업적인 면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느끼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② ㄴ : 자녀와 비교하여 부모가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③ ㄷ : 부모는 자녀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여 충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ㄱ+ㄴ :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 ⑤ ㄱ+ㄷ : 갈등이 지속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갈등이 발생하는 즉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한다.

8.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주제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

I. 서론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필요성

II. 본론 :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효과 ..... ㉠

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 ..... ㉡

가. 교통안전 학습교재 발간

나. 교통안전 교육 전개

2. 교통안전 대책의 수립

가. 교통안전시설 체계 구축

나. 교통안전법규 정비 ..... ㉢

3. 자율적인 시민 참여 운동 전개

가.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센터 운영

나. 차량 번호판 정비 운동 전개 ..... ㉣

다. 교통안전 봉사단체 간의 협력 체계 구축

III. 결론 : 교통사고 결과의 구체적 사례 제시 ..... ㉤

- ① ㉠은 주제에 맞도록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실천 방안'으로 고친다.
- ② ㉡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구체화한다.
- ③ ㉢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II-3'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은 글의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하위 항목에서 삭제한다.
- ⑤ ㉤은 글 전체의 흐름에 맞게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실천 촉구'로 바꾼다.

[9~10] 다음은 봉사활동 동아리가 지역사회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할 제안서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프로그램명	홀로 사시는 어르신 사랑 나누미
제안 단체	△△고등학교 봉사활동 동아리 ○○○
<b>제안 이유</b>	우리 ○○군 인구의 10%는 65세 이상이며, 그 중 87%의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 ㉠ <b>반경</b> 이 줄어들어 따라 집에서만 홀로 생활하십니다. ㉡ <b>그러므로</b> 자원봉사 인력이 부족하여 외진 곳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b>제안 내용</b>	봉사활동은 꾸준한 만남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b>결연관계</b> 를 ㉢ <b>유지</b> 합니다. ㉣ <b>나아가</b>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발마사지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함께하는 놀이, 청소, 말벗, 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b>그래서</b> 봉사활동은 <b>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b>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기억력 증진 프로그램인 ‘까마귀 몰아내기’ 활동도 하고자 합니다.
<b>기대 효과</b>	[A]

9. [A]에 넣을 표현으로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input type="radio"/> 참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드러낼 것. <input type="radio"/> 어르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것.

- ①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삶에 대한 희망을 드리는 길입니다. 이는 지역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 ③ 의미 있는 바깥 활동은 어르신들께 삶의 기쁨을 드립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무리한 활동은 어르신들께 정신적·육체적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 ④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만나는 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⑤ 이 활동을 통해 소외 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나뉘는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어르신들께는 건강 증진의 기회 및 삶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10.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맥으로 보아 ㉠을 ‘환경’으로 바꿔야겠군.
- ② ㉡을 ‘그러나’로 바꾸면 앞 문장과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겠군.
- ③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을 ‘유지해야 합니다.’로 바꿔야겠군.
- ④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니 보충해야겠군.
- ⑤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군.

11.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어법에 맞는 것은? [1점]

- ①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 ②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 ③ 작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린다.
- ④ 도서부장, 선생님께서 너 빨리 오시래.
- ⑤ 철새가 날라가는 모습을 보니 어떻습니까?

12. <보기>를 근거로 할 때,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input type="radio"/> <b>동조(同調)</b> 「명사」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input type="radio"/> <b>방조(幫助/幫助)</b> 「명사」 『법률』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input type="radio"/> <b>협조(協調)</b> 「명사」 「1」 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룸. 「2」 생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함.

- ① 마을 사람들은 이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 ② 회사 발전을 위해 노사가 서로 방조해야 한다.
- ③ 고개를 끄덕여 그에게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④ 그는 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전국에 수배되었다.
- ⑤ 업무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통 의식을 진행할 때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와 “입학식을 시작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중 어느 것이 바른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둘 다 틀리지 않다.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는 입학식을 시작하겠다는 말하는 이의 의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다. 그러나 ‘-겠-’ 없이 “입학식을 시작합니다.”가 ‘-겠-’이 들어간 말보다 명확하고 간결해서 더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겠-’을 시제 개념보다는 서법\* 범주에 넣어 문장 안에서 어떤 용언의 어간과 어미 사이에서 추측, 의지, 능력, 태도 등의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겠-’을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라 하여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라고 한다.

- [A] (가) 내가 살다보니 별사람을 다 보겠군.  
 (나) 그가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구나.  
 (다) 이걸 너 혼자서 다 할 수 있겠니?  
 (라) 나는 커서 시인이 되겠어.  
 (마) 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위 (가)~(마)는 ‘-겠-’의 정상적인 쓰임새를 다양하게 보인 예이다. 다음에 보이는 예문이 자연스러운지 어색한지, 어색하다면 어디가 어색한지 자세히 살펴보자.

- (바)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 2만 5천 원 되겠습니다.

위 (바)에 나타나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에서 ‘-겠-’은 말하는 이의 ‘의지’나 ‘희망’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바라다’라는 말 자체가 ‘희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뜻이 중복되어 어색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 ‘-겠-’은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희망하겠습니다’, ‘원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의미 중복으로 인해 어울리지 않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바)의 경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야 바른 말이다.

(사)의 ‘되겠습니다’ 경우는 물건 값을 물을 때 이처럼 대답하기도 하고, 2만 원에 5천 원을 더하면 얼마냐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사례가 있다. 이 말에서는 사실상 두 가지 경우 모두 ‘되겠습니다’란 말 자체가 군더더기이고 그냥 “2만 5천 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간결하고 바른 말이다.

우리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겠-’이 들어가 말이 어색해지거나 군더더기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의식이나 일상생활에서 별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군더더기 표현을 버리고 명확하고 간결한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

\* 서법(mood) :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 변화

13. 위 글의 중심 내용은?

- ① ‘-겠-’의 기능과 시제의 분류
- ② ‘-겠-’을 활용한 문장의 구조
- ③ ‘-겠-’을 이용한 의미의 확장
- ④ ‘-겠-’을 통해 본 선어말어미의 특징
- ⑤ ‘-겠-’의 쓰임새와 올바른 사용 방법

14. [A]에 쓰인 ‘-겠-’과 <보기>를 연결했을 때, 적절한 것은?

<보 기>

**-겠-** 「어미」  
 (‘이다’의 어간, 용언의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뒤에 붙어) (다른 어미 앞에 붙어)  
 (ㄱ) 미래의 일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ㄴ)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어미.  
 (ㄷ)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어미.  
 (ㄹ) 완곡하게 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어미.  
 (ㅁ) 해아리거나 따져 보면 그렇게 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 ① (가) - (ㄱ)
- ② (나) - (ㄴ)
- ③ (다) - (ㄷ)
- ④ (라) - (ㄹ)
- ⑤ (마) - (ㅁ)

15.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는 방학 기간 동안 축구를 실컷 했다.
- ② 이 영화는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
- ③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
- ④ 그의 사상이 밖으로 표출되어 있는 것이 이 책이다.
- ⑤ 그는 열심히 공부에 열중하여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린 시절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날 때면 어머니는 입으로 ‘후우’하고 불어주시곤 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처가 다 나은 것 같아 울음을 그치곤 했다. 어머니의 입김은 영원히 식지 않을 것 같은 온풍이었다. 관악기가 가슴으로 전해지는 몽클한 감동을 주는 건 이 따뜻한 입김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런 포근한 울림을 주는 악기, 훈(薰)을 소개한다.

우리나라에 훈이 들어온 때는 고려 예종 11년(1116년)이다. 당시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와 아악 연주에 사용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훈과는 다른, 저울추 같은 모양의 훈이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성종 때 만든 ‘악학궤범’에는 다음과 같은 훈에 관한 기록이 있다. ‘높이는 3촌 7푼, 가운데 둘레 8촌, 밑바닥 지름 1촌 7푼의 크기이다. 지공은 앞에 셋, 뒤에 둘이며, 뾰족한 꼭지 부분에 취구를 만든다.’(‘촌’은 약 3.03cm, ‘푼’은 약 0.303cm)

이처럼 훈은 자그마한 악기로, 그 모습이 마치 공처럼 생겼고, 끝이 막혀 있는 폐관악기의 형태라 ‘공을 울려 나오는 소리’라는 뜻의 ‘명구(鳴球)’라 부르기도 한다. 훈은 기와를 만드는 흙이나 황토에 숨을 섞어 만드는데, 최근에는 도자기로 구워서 만들어내기도 한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훈에 사람의 입김을 불어 넣으면 그 어느 관악기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가 난다.

소리는 취구에 입김을 불어 넣고 지공을 열거나 닫아서 만들어 낸다. 지공이 5개밖에 없는데도 12가지 음을 다 내는 것은 지공 하나를 반만 열어서 다른 음을 만들어내는 반규법(半竽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②음을 낼 때 손가락으로 5개의 지공을 모두 막으면 ‘황종(黃鐘)’이 나고, 이 황종에서 지공 하나를 반만 열면 반음 높은 음인 ‘대려(大呂)’를 나타낼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지공을 열어가며 음을 높여가고, 지공을 모두 열면 ‘응종(應鐘)’이 ㉠나게 된다.

이런 연주법의 특성과 형태상 훈을 연주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음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음정을 내기가 어렵고, 빠른 연주에는 적합하지 않아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묘악에서 토부(土部) 악기의 구실을 하기 위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16. ‘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성종 때 전해져 아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 ② 지공의 수가 적어 일반인도 정확한 소리를 내기가 쉽다.
  - ③ 12가지 소리 중 ‘응종’을 제외한 모든 음을 표현할 수 있다.
  - ④ 형태 및 연주법의 특성상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같은 저울추 모양의 훈이 주로 사용되었다.

17. ㉠로 보아 ‘대려(大呂)’를 낼 수 있는 그림은? [1점]

●은 지공을 막은 상태      ○은 지공을 연 상태  
 ①은 지공을 반만 연 상태

① 앞 ● ●      ② 앞 ● ●      ③ 앞 ● ○  
 뒤 ● ●      뒤 ● ●      뒤 ○ ●

④ 앞 ○ ○      ⑤ 앞 ○ ○  
 뒤 ○ ○      뒤 ○ ○

18. <보기>를 참고할 때, ‘훈’과 ‘오카리나’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 보 기 >

‘오카리나(ocarina)’는 ‘거위’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oca’와 ‘작다’라는 뜻인 ‘rina’의 합성어이다. 고대부터 전해오던 흙피리 형태의 악기를 19세기 이탈리아의 음악가 주세페 도나티가 개량하여 만든 것인데, 현재는 형태에 상관없이 흙으로 만든 관악기를 통칭해서 ‘오카리나’라고 부른다. 위쪽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입에 물고 불며, 그 뒤에 울림구멍이 있고 끝은 막혀 있는 형태이다. 지공은 4~13개이고 주로 온음계를 내지만 손가락으로 조절하면 반음계도 낼 수 있다.

- ① 반음계를 낼 수 있다.
- ② 끝이 막혀 있는 형태이다.
- ③ 주로 흙을 이용하여 만든다.
- ④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대중화되었다.
- ⑤ 입김과 손가락을 활용하여 소리를 낸다.

19. ㉠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저씨가 나오셨다.
  - ② 그는 시골에서 3년을 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 ③ 소나기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 경기를 계속할 것이다.
  - ④ 부모와 따로 살림을 나면 아무래도 생활비가 더 든다.
  - ⑤ 사춘기 아들의 턱에 수염이 나더니 행동이 의젓해졌다.

[20~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城)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 여섯 해가 지나갔다.

[A]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가니  
오는 봄엔 분수(噴水)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땀볼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땀볼」 -

(나)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①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을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몸에 붙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은 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쌀쌀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 안도현, 「연탄 한 장」 -

(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分別(分別)할 줄 이시라.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뢰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①秋城(추성) 鎖胡樓(진호루)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晝夜(주야)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피훈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20.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이 나타나 있다.
- ② 규칙적인 율격을 통한 운율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시적 대상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지나간 삶에 대한 반성적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⑤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려는 자세가 드러나 있다.

21.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
- ②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  
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 ③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  
우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 ④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당신은 흙밭로 나를 짓밟  
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 ⑤ 지금 눈 나리고 /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 내 여기 가난  
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다시 천고의 뒤에 /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 이육사, 「광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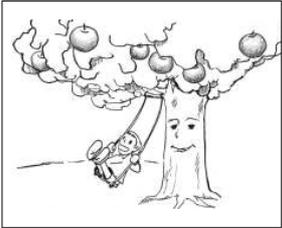
22. (가)를 쓰기 위해 구상하는 과정에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시상에 반영하자.
- ② 어둠과 밝음의 대립된 이미지를 활용하자.
- ③ 상징적 시어를 이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자.
- ④ 동일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나타내자.
- ⑤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하게 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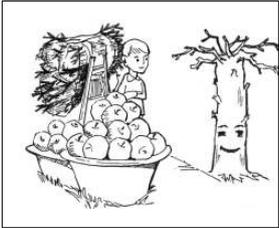
23. (나)와 <보기>를 연관 지어 수업한다고 할 때,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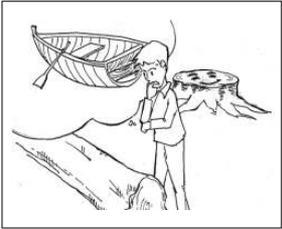
선생님 : 작가의 창작 의도를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내면화하고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문학의 가치입니다.



I. 한 소년을 돌보며 행복해 하는 나무



II. 소중한 것을 나눠주며 행복해 하는 나무



III.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주며 행복해 하는 나무



IV.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행복해 하는 나무

- ① (나)의 '연탄 한 장'과 <보기>의 '나무'를 보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어.
- ② (나)의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연탄과 <보기>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끝없이 베푸는 사랑을 해야겠어.
- ③ (나)의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하는 시적 화자와 <보기>의 밀동만 남은 '나무'는 같은 심정일거야.
- ④ (나)의 '나'와 <보기>의 인물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겠어.
- ⑤ (나)의 '연탄'과 <보기>의 '나무'를 통해 두 작가는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24. <보기>를 참조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견회(遣懷)'는 '시름을 쫓다, 회포를 풀다, 마음을 달래다'의 뜻으로 쓰임.
- 윤선도는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 집권 세력들의 죄상을 격렬하게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도리어 이로 인해 모함을 받아 함경도 추성(秋城)으로 유배되고, 그곳에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부모에 대한 효심이 드러나는 '견회요(遣懷謠)' 5수를 지음.

- ① 제목인 견회요(遣懷謠)는 화자의 억울한 마음을 달래는 노래라는 의미로군.
- ②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굳건히 하겠다는 화자의 강직한 태도가 보이는데.
- ③ 일이 잘못되면 자신이 귀양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자책하는군.
- ④ 밤낮으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임금님을 향한 화자의 충성심은 언제나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군.
- 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외기리기에 의탁하여 애절하게 표현한 것을 보니 화자의 효심이 느껴지는군.

2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의인화가 있고, ㉡은 의인화가 없다.
- ② ㉠은 객관적 생각이고, ㉡은 주관적 생각이다.
- ③ ㉠은 ㉡과 달리 새로운 대상으로 관심을 옮겨가고 있다.
- ④ ㉠과 ㉡ 모두 화자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과 ㉡ 모두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행이나 농협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는 말은 웬지 ㉠낯설다.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여러 금융기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금융 기관들은 어떻게 다른 걸까?

먼저 은행에는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특수은행이 있다. 이 중, 중앙은행으로는 금융제도의 중심이 되는 한국은행이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인 한국 은행권을 발행하고, 경제 상태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곧 통화량을 조절한다.

㉡일반은행의 종류에는 큰 도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형성하는 시중은행과 지방 위주로 영업하는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있다. 일반은행은 예금은행 또는 상업은행이라고도 하며, 예금을 주로 받고 그 돈을 빌려주어서 이익을 얻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영된다.

특수은행은 정부가 소유한 은행으로서, 일반은행으로서의 수지가 맞지 않아 자금 공급이 어려운 경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국가 주요 산업이나 기술 개발용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산업은행, 기업이 수출입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주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농업과 축산업 금융을 ㉢다루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수산업 금융을 다루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도 특수은행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제1금융권이라고 한다.

제2금융권은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과 ㉣비슷한 예금 업무를 다루는 기관으로, 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고 특정한 부문의 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영회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호저축은행은 도시 자영업자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소형 금융 기관이다. 은행처럼 예금 업무가 가능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지만 이자가 더 높고, 일반은행과 구별하기 위해서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쓴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과 수협의 지역 조합을 통틀어 신용협동기구라고 하는데, 직장 혹은 지역 단위로 조합원을 ㉥모아서 이들의 예금을 받고, 그 돈을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금융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투자신탁회사, 자산운영회사는 투자자들이 맡긴 돈을 모아 뭉쳐돈으로 만들어 증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지만, 돈을 빌려 주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금융 기관들이 있는데, 이를 기타 금융 기관이라고 한다. 기타 금융 기관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있는데, 신용카드회사와 할부금융회사, 기계 등의 시설을 빌려주는 리스회사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증권사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증권금융회사도 기타 금융 기관에 해당한다.

26. 위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상에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 ②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 ③ 대상의 기능을 강조하여 독자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 ④ 대상의 장점을 부각시켜 대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 ⑤ 대상과 관련된 미담을 제시하여 독자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27. ㉠에 사용된 설명 방법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녹차는 차잎을 언제 채취하느냐에 따라 우전, 세작, 중작, 대작으로 나눌 수 있다.
- ② 우리 조상들은 단옷날 많은 풍속을 즐겨 왔다. 씨름, 그네뛰기, 풀싸움 등이 그 좋은 예이다.
- ③ 사십에 가까운 노총각인 그는 수염투성이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망울이 마치 삼국지의 장비를 생각나게 한다.
- ④ 시계는 동력을 공급하는 태엽, 동력을 전달하는 톱니바퀴, 시각을 가리키는 시침과 분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⑤ 여름의 폭염을 이겨내야만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인생에서도 힘든 시기를 견뎌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28.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국회의원 A씨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임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

○ 농부인 B씨는 이번에 새롭게 벼짓농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 기관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으려 한다.

○ 중소기업의 사장인 C씨는 제품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려 했으나, 그 돈은 예금으로 맡겨 놓고 기계를 임대하는 것이 더욱 이익임을 알게 되었다.

- ① A씨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측에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을 거야.
- ② B씨는 농업과 관련된 금융을 주로 다루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야.
- ③ B씨가 좀더 낮은 이자로 대출 받기를 원한다면 투자신탁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어.
- ④ C씨는 기타 금융 기관인 리스회사를 통해서 필요한 기계를 빌릴 수 있을 거야.
- ⑤ C씨는 여유 자금을 제1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예금할 수도 있어.

29. ㉠~㉥과 바뀔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생소하다
- ② ㉡ : 언급하는
- ③ ㉢ : 유사한
- ④ ㉣ : 사용한다
- ⑤ ㉤ : 모집해서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십 수 년 전만 해도 해도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을 사먹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생수 사업이 번창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가 생활 가전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나)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의 대부분은 역삼투압 방식이다. 이 정수기는 삼투압 현상을 응용하여 만든 것이다. ‘삼투압 현상’이란 반투막을 사이에 둔 두 용액의 농도 차에 의해 저농도용액 속의 물이 고농도용액 속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생물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한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 물을 흡입하고, 짠 바닷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반면, ‘역삼투압 현상’이란 자연계의 ‘삼투압 현상’을 거꾸로 응용한 것으로 고농도용액에 삼투압 이상의 압력을 가하면 삼투압 현상과는 반대로 고농도용액 측의 물이 저농도용액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역삼투압 정수기의 정수 과정은 세디멘트 필터 → 펌프 → 선(先) 카본 필터 → 멤브레인 필터 → 후(後) 카본 필터로 진행된다. 이 중 핵심은 멤브레인 필터로 표면에 아주 작은 구멍이 매우 촘촘히 뚫려 있다. 순수한 물 분자의 입자만이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고 입자가 큰 나머지 이물질은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면을 스쳐 밖으로 배출된다.

(라) 역삼투압 정수기는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해 0.0001 마이크론의 미세한 구멍(사람 머리카락의 100만분의 1)을 통해 물을 거르기 때문에 유기 및 무기 오염 물질,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을 포함한 이온 물질을 99%에 가깝게 제거하여 순수한 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정수 과정에서 역삼투압을 만들기 위한 고압의 펌프가 필요하고, 순간적으로 정수되는 물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일정량을 모아서 쓰기 위한 정수 저장 탱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터의 막에 있는 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물 중 약 3분의 2 정도의 물은 거르지 않고 흘려보낸다.

(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저압형 역삼투압 정수기가 개발되었다. 저압형 역삼투막은 막 표면의 구멍 크기가 기존의 역삼투막보다 크기 때문에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역삼투압 정수기보다 오염물질 제거율이 다소 떨어지고 종래의 역삼투압 정수기와 같이 별도의 정수 저장 탱크도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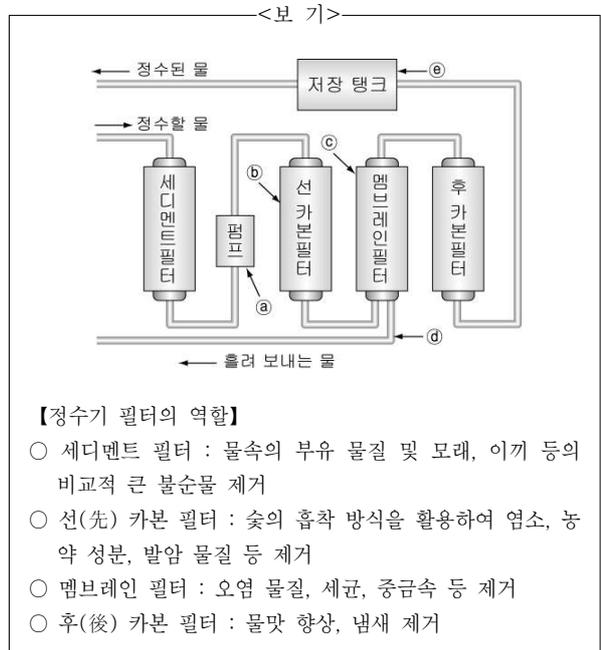
30.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용액의 농도차가 없어도 삼투압 현상은 발생한다.
- ② 역삼투압 정수기는 거의 모든 오염 물질을 걸러 낼 수 있다.
- ③ 역삼투압 현상은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한다.
- ④ 기존의 역삼투막은 저압형 역삼투막보다 막 표면의 구멍이 크다.
- ⑤ 사람 머리카락 크기 정도의 오염 물질은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할 수 있다.

31. (가) ~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현 실정을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② (나) :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③ (다) : 대상의 작동 원리와 단계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라) : 대상이 지닌 장점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마) :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

32.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정수 방식에 따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군.
- ② b로 보아 암마가 간장독에 숯을 넣은 이유를 알겠군.
- ③ c가 이 정수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로군.
- ④ d로 배출되는 물을 활용할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군.
- ⑤ e는 저압형 역삼투압 정수기에서 필요하지 않겠군.

33. ㉠ : ㉡의 의미 관계와 유사한 것은?

- ① 새의 주둥이를 부리라고 한다.
- ② 밤부터 비가 많이 내리더니 홍수가 났다.
- ③ 나는 사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좋아한다.
- ④ 자전거 타이어는 여름에 팽창되고 겨울에 수축된다.
- ⑤ 먼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먼저 수리해야 한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 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잔해야 한대구 옷섬이(얼른 보면 짐승 우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뻗죽이 빠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드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 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펜스리 꼴을 낼라구 든다. 뽀뽀 뽀이래야 좋냐구, 장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말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두 자꾸 잇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꼭 밟고 결눈질을 흘기는 바람에 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가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 씨! 얼른 성엘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루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기집애년이 미쳐 자라야 할 게 아닌가?”

[A] 하니까 고만 멀쭉해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쎸, 이 자식야!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한 것이 그럼 어떻게 엘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컷배기가 하나가 적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꺾쩍 웃드니(그러나 암만 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릴라구 팔꿈치로 옆 갈비끼를 펍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굽으리며 그 궁둥이를 콕 떼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싸리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루 고치드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참아 못하고 쏘는 그 꼴이 보기에 펍 쟁그러웠다.

그러나 이밖에는 별반 신통한 귀정을 얻지 못하고 도루 논으로 돌아와서 모를 부었다. 왜냐면, 장인님이 뭐라구 컷속말로 수군수군하고 간 뉘다. 구장님이 날 위해서 조용히 데리고 아래와 같이 일러 주었기 때문이다.(몽태의 말은 구장님이 장인님에게 땅 두마지기 얻어 부치니까 그래 피었다구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않는다.)

“자네 말두 하기가 옳지. 암, 나이 찼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허지만, 농사가 한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든가 집으로 달아난다든가 하면 손해죄루 그것두 징역을 가져 든!(여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났다.) 왜 요전에 삼포 말서 산에

불 좀 놓았다구 징역 간 거 못 봤나. 제 산에 불을 놓아도 징역을 가는 이 땐데 남의 농사를 버려 주니 죄가 얼마나 더 중한가. 그리고 자넨 정장을(사경 받으러 정장 가겠다 했다.) 간대지만, 그러면 펜스리 쥘 들쓰고 들어가는 걸세. 또, 결혼두 그렇지. 법률에 성년이란 게 있는데 스물하나가 돼야지 비로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걸세. 자넨 물론 아들이 늦일 걸 염려지만, 점순이루 말하면 인제 겨우 열여섯이 아닌가. 그렇지만 아까 빙장님의 말씀이 올 갈에는 열일을 제치고라두 성례를 시켜 주겠다 하시니 좀 고마울 겐가. 빨리 가서 모 붓든 거나 마저 붓게. 군소리 말구 어서 가…….”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꺾소리 없이 왔다.

장인님과 내가 싸운 것은 지금 생각하면 전혀 뜻밖의 일이라 할 수 없다. 장인님으로 말하면 요즈막 작인들에게 행세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돈 있으면 양반이지 별 게 있느냐!”

하고 일부러 ㉡아랫배를 툭 내밀고 겉음도 뒤틀리게 걷고 하는 이 판이다. 이까진 나썸 뒤틀기다 남의 땅을 가지고 머처럼 뒤어 놓았든 가문을 망친다든가 할 어른이 아니다. 또 나로 논지면 아무쪼록 잘 배서 점순이에게 얼른 장가를 들여야 하지 않느냐…….

- 김유정, 「봄봄」 -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서술하는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
-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여러 개의 삽화를 나열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⑤ 특정 인물의 시각과 입장에서 서술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해학적 상황이 발생할 때, 독자는 우월한 정보 능력 때문에 해학적 상황을 투시하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정보 결핍 상태에 있는 인물은 해학적 상황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 상황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해학적 상황에 빠진 인물이 해학적 상황을 불러일으킨 오해·음모·우연을 인식할 때까지 해학적 상황은 지속되고, 해학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의 말과 행동은 웃음을 위한 재료가 된다.

- ① ‘장인’과 ‘구장’은 ‘나’를 해학적 상황에 빠뜨리는 공모자로군.
- ② ‘구장’이 ‘나’를 편들어 이야기를 한다고 ‘나’는 오해하고 있군.
- ③ ‘몽태’는 우월한 정보를 가진 독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로군.
- ④ ‘나’는 음모의 진실을 알게 됨으로써 해학적 상황에서 벗어나는군.
- ⑤ ‘나’는 자신이 처한 해학적 상황을 알지 못하고 사실로 인식하고 있군.

36.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문화적 동경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 ② ㉡은 보는 사람에게 호의적 반응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 ③ ㉠과 ㉡ 모두 동일 인물의 행동이다.
- ④ ㉠과 ㉡ 모두 언어에 부수되는 표현이다.
- ⑤ ㉡은 ㉠과 달리 소리가 동반되는 행동이다.

37. [A]를 재판 장면으로 바꾸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재판관 : 구장  
 ○ 원고 : 나  
 ○ 피고 : 봉필(장인)

**재판관** : 원고의 주장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군요. 피고는 계약대로 이행하시는 것이 어떨는지요.....㉠

**피고** : 무슨 말씀이십니까? 점순이는 아직 혼인할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니다. 재판관님, 벼도 익어야 베는 법인데 결혼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사교라도 나면 재판관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

**재판관** : 끄응..... 하긴 혼인을 하려면 더 크긴 커야겠네요.

**원고** : 무슨 말씀이십니까? 4년 동안이나 자라지 않다니요? 이걸 계약 이행을 회피하려는 핑계입니다. ....㉢

**피고**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조건만 된다면 계약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 : 말도 안 됩니다. 키를 가지고 끌어난 지 4년입니다. 혼인 안 해도 좋으니 지금 당장 4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십시오.

**피고** : 아참, 그까짓 돈이 문젠니까? 원고도 키라는 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잘 알지 않습니까? 키만 큰다면 언제든지 혼사를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정 그렇게 원한다면 계약은 없었던 일로 합시다.....㉤

**원고** :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피고도 피고의 부인을 보면, 키가 혼인과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잘 아시겠습니까?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마찰력은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성가신 힘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마찰력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물체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도 하고, 비행기나 자동차의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어 마찰력을 줄이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마찰력이 작은 얼음판 위를 걸어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에 마찰력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마찰력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마찰력은 왜 생기는 것일까? 표면이 울퉁불퉁한 돌을 서로 문지르면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서로 긁히면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긁히고 떨어져 나갈 때 작용하는 힘이 마찰력이다. 매끈매끈해 보이는 표면도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돌맹이처럼 원자와 분자들이 돌출해 있다. 표면이 서로 스치면 이렇게 돌출된 원자와 분자들이 서로 긁히기 때문에 매끄러워 보이는 물체 사이에도 마찰력이 생기는 것이다.

고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두 물체의 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책을 밀어서 앞으로 보낼 때 마찰력의 크기는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과, 책과 책상의 표면 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내려 누르는 힘이 크거나 표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단, 질량이 같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책상 면에 접한 물체의 표면적 크기는 마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는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책을 살며시 밀어 보자. 책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책을 힘을 가했는데도 책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가한 힘과 마찰력이 서로 비겼기 때문이다. 이때 마찰력의 크기는 내가 책에 가한 힘과 같다. 다음에는 조금 더 센 힘으로 책을 밀어 보자. 아직도 책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이때의 마찰력도 내가 가한 더 센 힘과 비긴 것이다. 이렇게 책에 가하는 힘을 조금씩 세게 하면 마찰력도 조금씩 증가할 것이다.

그러다 미는 힘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찰력이 더는 커질 수 없기 때문이다.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체에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작은 힘을 가하면 가해 준 힘은 마찰력과 비겨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가하면 물체는 마찰력을 이기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크고, 일단 움직이면 작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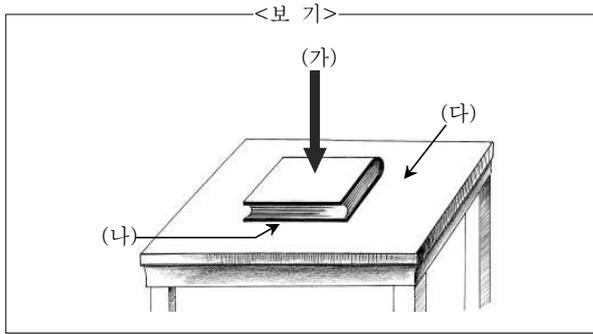
3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마찰력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크다.
- ② 자동차를 유선형으로 만들면 마찰력을 줄일 수 있다.
- ③ 일반적으로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인식된다.
- ④ 정지해 있는 물체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힘을 가해도 움직인다.
- 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외부에서 가해진 힘과 마찰력이 같기 때문이다.

39. ㉠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산에 오를 때 등산화를 신는다.
- ② 겨울철 빙판길에 모래를 뿌린다.
- ③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붙인다.
- ④ 기계의 톱니바퀴 부분에 윤활유를 바른다.
- ⑤ 역기를 들기 전 손에 송진 가루를 묻힌다.

40. [A]를 참고로 할 때, <보기>에 있는 책의 마찰력을 가장 크게 만드는 조건은?



	(가)누르는 힘	(나)접촉 표면적	(다)책상 표면 상태
①	2	1	거칠다
②	1	2	거칠다
③	1/2	1/2	거칠다
④	2	1	매끄럽다
⑤	1/2	1/2	매끄럽다

\* 숫자가 클수록 힘이 커지고 표면적이 넓어짐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101 교실 (오전)**

(시험지 상단에 쓰인 '황영수'란 이름을 지우고 '엄석대'라 써 넣는 영수. 고개를 들다가 가방 너머 옆자리의 병태와 시선이 마주친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의 행위를 주시하는 병태의 시선에 순간 움찔하다 모른 척 ㉠시험지를 들고 나간다.)

**S#102 화장실 안**

**병태** : 엄석대가 부탁했지?

**영수** : (언뜻, 병태의 눈치를 살핀 후) 응, 산수는 항상 내가 해. 다음 시간 사회는 아마 문셀걸?...왜?

**병태** : 아...아니야...

**영수** : (눈치를 보고는) 너도 미술시간에 석대의 그림을 그려 주었잖아. 그것도 시험을 대신 쳐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S#103 공장터 (저녁)**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는 아이들. 승찬, 뒷에 걸린 토끼 두 마리를 들고 들어온다. 뒤이어 석대와 병태가 들어온다. 사열 하듯 아이들을 지나 앉는 석대. 석대, 승찬이 함께 가져온 ㉡예리한 꼬챙이로 아직 살아있는 토끼의 목을 관통한다. 고개 돌리는 병태의 얼굴에 튀는 토끼의 선혈.)

**병태(소리)** : 그날 나를 대하는 석대의 태도는 보통 때와 사뭇 달랐으며, 나는 그가 베풀어준 권력의 단맛에 흠뻑 취했다. 나는 진정으로 그의 왕국과 질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 안에서 확보된 나의 남다른 특권 또한 그러하기를 믿고 또 바랐다. 그해 겨울은 그렇게 흘렀다.

㉢1960년 봄, 우리는 6학년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S#104 교실 (아침)**

(교단에 서 있는 김 선생. 그 뒤로 김정원이란 이름과 정직과 진실이란 글씨가 보인다.)

**김 선생** :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나는 지금 몹시 부끄럽다. 하지만 너희들이 살아갈 시대는 당연히 그래야 하고 또 그럴 것이다.

**S#105 교실 (낮)**

(칠판에 산수 문제를 적는 김 선생. 몸을 돌려 아이들을 바라보며)

**김 선생** : 이 문제 풀 사람?

(손을 드는 아이가 하나도 없다.)

**김 선생** : 그럼, 엄석대 나와서 풀어 봐!

(힘겹게 교단까지 나오는 석대. 한참을 끙끙거리지만 반도 채 못 풀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김 선생** : 영 알 수가 없구나. 2년간 계속 1등을 차지했다는 녀석이..... 들어가.

(고개를 숙인 석대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김 선생)

S#106 교실 (아침)

(시험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눈을 감는 아이들.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석대의 모습도 보인다.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교단에 올라서는 김 선생)

S#107 교실 (아침)

(교탁에 시험지 뭉치와 함께 ㉡굵은 뭉둥이를 소리 나게 내려놓는다.)

김 선생 : 너희들은 오래 전부터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딴 이름을 써서 냐어! 그게 누구지?

(고개를 떨구고 있던 석대의 눈이 번쩍 빛을 발하며 아이들을 쏘아본다.)

김 선생 : 더 맞고 싶어? 누구와 시험지를 바꾼 거지? 박원하 말해봐.

원하 : (떠들떠듬) 엄...석...대

김 선생 : 모두 맞아?

아이들 : ...네...에...

김 선생 : 못한 놈들. 너희는 당연한 너희 몫을 뺏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1번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일어서는 아이) 말해 봐 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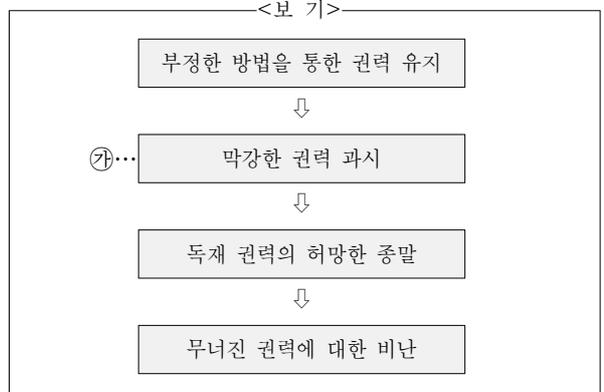
1번 : (작게) 연필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 : 다음 2번!

2번 : 토요일마다 100환씩 주었어요.

- 박종원 각색,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42. 위 글의 사건 전개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석대의 비리를 날날이 고발하고 있는 ‘아이들’
- ② 아이들을 사열하듯 지나쳐 토기를 죽이는 ‘석대’
- ③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도록 훈계하는 ‘김 선생’
- ④ 미술 시간에 석대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는 ‘병태’
- ⑤ 칠판의 산수 문제를 반도 채 못 푼 상태에서 머뭇거리는 ‘석대’

41.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기 위해 논의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S#102 : 영수는 병태가 석대의 그림을 대신 그리는 일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연기해야겠어.
- ② S#103 :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나도록 촬영 장소와 조명에 신경을 써야 해.
- ③ S#104 : 불안감을 고조하는 음악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 것을 암시하도록 해야지.
- ④ S#105 : 김 선생은 석대의 실력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냉소적인 어조로 말하는 게 좋겠어.
- ⑤ S#107 : 석대의 위협적인 모습을 클로즈업 기법을 활용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어.

43. <보기>는 이 영화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 중,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3점]

<보 기>

영화에서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배경과 소품 등의 의도적인 장치를 사용한다. 이 작품에서도 권력의 실상을 친근한 일상생활의 영역에 투영하여 당시의 한국적 정치 현상을 우의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절대 권력에 기생하는 인간 유형을 드러내기 위해 이러한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습(learning)은 ‘직접·간접의 경험이나 훈련에 의한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 학습의 원리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가 그것이다.

음식(무조건 자극)은 개로 하여금 침(무조건 반응)을 흘리게 만든다. 그러나 음식을 주기 전에 침을 흘리게 하는 음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종소리(조건 자극)를 계속 들려주면, 음식물이 없이 종소리만 들어도 개는 침(조건 반응)을 흘리게 된다. 이처럼 후천적으로 학습된 반사행동을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라 한다.

조작적 조건화(operant conditioning)는 유기체가 여러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진 조건화이다. 그러므로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자극이 먼저 제시되었지만,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강화라는 이름으로 자극이 나중에 제시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유기체가 어떤 행동을 수행했을 때 그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은 그 행동 뒤에 따르는 ㉠강화(強化)가 어떤 것인가에 달려 있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들은 자세히 보게 되면 조작적 조건화로 학습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징크스이다.

징크스(jinx)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마술에 사용하던 새의 이름(jugx)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람의 힘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마치 마술과 같은 힘으로 일어나는 불길한 일이나 운명적인 일을 의미한다. 국어대사전에서는 ‘계수 없는 일, 불길한 일’, ‘오투 그렇게 되리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징크스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은밀히 존재하여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일단 징크스에 걸리면 저항하기 쉽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징크스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리적 불안 상태에 휩싸이게 되므로, 웬만하면 징크스를 지키는 편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징크스들은 모두가 조작적 조건화의 결과이다. 손톱을 깎지 않는 징크스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 사람은 아마도 징크스가 생기기 전에는 손톱 깎는 것과 시험 성적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도 아무 연관이 없다. 그런데 한번은 공부한 것에 비해 성적이 월등하게 나왔다고 하자. 무엇 때문일까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 즉 이번에는 손톱을 깎지 않았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결국 ‘손톱을 깎지 않았다는 것’과 ‘시험 성적이 좋았다’는 관계없는 두 행동이 연결되어 다음부터는 시험 보기 전에 손톱을 깎지 않게 된다.

44.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일반적인 상식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 ②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개념을 정의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 ⑤ 어원과 유래를 종합해서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45.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징크스는 고전적 조건화의 사례이다.
- ② 학습은 단기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 ③ 징크스를 지키는 것은 심리적 상태와 무관하다.
- ④ 조작적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화보다 능동적인 조건화이다.
- ⑤ 징크스는 필연성이 있는 행동들이 연결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46. <보기>를 참고할 때,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강화는 어떤 원하는 행동이 나타난 다음에 자극을 제시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

- 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에게 물감을 사주었더니 피아노도 사달라고 한다.
- ② 말을 처음 시작한 아기에게 엄마가 자주 칭찬을 해 주었더니 말을 더 빨리 배운다.
- ③ 축구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쳐주었더니 더욱 열심히 뛰는다.
- ④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은 학생에게 사탕을 주었더니 이전보다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
- ⑤ 사육사의 명령을 잘 따른 동물원의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었더니 더 멋지게 묘기를 보여준다.

[47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감사 이 말을 듣고 집수유체(執手流涕)\*하며 가로되,  
 “이 무거운 아이야. 너도 나와 동기거늘 부형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고 일국이 소동케 하니 어찌 애담지 않으리요. 네 이제 정작 몸이 와 나를 보고 잡혀가기를 자원하니 도리어 기특한 아이로다.”

하고 급히 길동의 좌편 다리를 보니 과연 홍점(紅點)이 있거늘 즉시 사지를 각별 결박하고 함거에 넣어 ㉠긴장한 장교 수습을 가려 철통같이 싸고 풍우같이 몰아가되 길동의 안색이 조금도 변치 아니하더라. 여러 날 만에 경성에 다다르니 켈문에 이르러 길동이 한번 몸을 요동하매 철삭이 끊어지고 함거가 깨어져 마치 매미가 허물 벗듯 공중으로 오르며 표연히 운무에 묻혀가니 ㉡장교와 재군이 어이없이 공중만 바라보고 다만 낚을 잃을 따름이라 할 수 없어 이 연유로 상달하온데 상이 들으시고 가로되,  
 “천고에 이런 일이 어디 있으리요.”

하시고 크게 근심하시니 신하 중 하나가 아뢰되,  
 “그 길동의 원이 병조판서를 한번 지내면 조선을 떠나리라 하오니 한번 제 원을 풀면 제 스스로 사은 하오리니 이때를 타 잡음이 좋을까 하나이다.”

상이 옳게 여기사 즉시 홍길동으로 병조판서를 제수하시고 사문에 방을 붙이니라. 이때 길동이 말을 듣고 즉시 ㉢사모관대에 서대 띠고 높은 초헌을 한가롭게 높이 타고 대로상에 완

연히 들어오며 이르되 이제 흥관서 사은하러 온다 하니 병조 하속이 맞아 호위하여 쉼내에 들어갈 새, 백관이 의논하되,  
 “길동이 오늘 사은하고 나올 것이니 도부수를 매복하였다가 나오거든 일시에 쳐 죽이라.”

하고 약속을 정하였더니 길동이 쉼내에 들어가 상께 숙배하고 아뢰되,

“소신이 죄악이 지중하옵거늘 도리어 천을 입사와 평생 한을 푸옵고 돌아가오니 영결전하하오니 복망 성상은 만수무강 하소서.”

하고 ㉠말을 마치며 몸을 공중에 솟아 구름에 싸이며 가니 그 가는 바를 아지 못할래라. 상이 보시고 한숨지어 탄식하여 가로되,

“길동의 신기한 재주는 고금에 회한하도다. 제 지금 조선을 떠나노라 하였으니 다시는 작폐할 길 없을 것이요. 비록 수 상하나 일단 장부의 쾌한 마음이 있는지라. 죽히 염려 없으 려다.”

하시고 팔도에 사문을 내리어 길동 잡는 공사를 거두시니라. 각설. 길동이 제 곳에 돌아와 제적(諸賊)에게 분부하되,  
 “내 다녀올 곳이 있으니 너희는 아무데 출입 말고 내 돌아오 기를 기다리라.”

하고 즉시 몸을 솟아 남경으로 향하되 가다가 한 곳에 다드르 니 이는 소위 울도국이라. 사면을 살펴보니 산천이 청수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가히 안심할 곳이라 하고 남경에 들어가 구경 하며 또 ㉡제도라 하는 섬 중에 들어가 두루 다니며 산천도 구 경하고 인심도 살펴며 다니더니 오봉산에 이르러는 짐짓 제일 강산이라. 주희 칠백 리요 옥야답(沃野沓)이 가득하여 살기에 정히 의합한지라. 내심에 생각하되 내 이미 조선을 하직하였으 니 이곳에 와 아직은 거하였다가 대사를 도모하리라 하고 표현 히 본 곳에 돌아와 제인더러 일러 가로되,

“그대 아무날 양천 강변에 가 배를 많이 지어 모일에 경성 한강에 대령하라. 내 임금께 청하여 정조 일천 석을 구득하 여 올 것이니 기약을 어기지 말라.”하더라.

각설. ㉢홍공이 길동의 작난이 없으므로 신병이 쾌차하고 상 이 또한 근심이 없이 지내더니 차시 추구월 땅간에 상이 월색 을 띠어 후원에 배회할새, 문득 일진청풍이 일어나며 공중으 로서 옥저 소리 청아한 가운데 한 소년이 내려와 상께 복지(伏 地)하거늘 상이 놀라 물어 가로되,

“선동이 어찌 인간에 강굴하며, 무슨 일을 이르고자 하느뇨.”  
 소년이 땅에 엎디어 아뢰되,  
 “신이 전임 병조판서 홍길동이로소이다.”

상이 놀라 물어 가로되,  
 “네 어찌 십야에 오느냐.”  
 길동이 대답하여 가로되,

“신이 전하를 받들어 만세를 모실까 하오나, 천비 소생이라 문 관으로는 옥당의 지위를 얻을 수 없고, 무관으로는 장수의 자 리에 오를 수 없으니 이러므로 사방을 떠돌며 관아를 습격하 고 조정에 죄를 지은은 전하가 아시게 하려 함이옵니다. 신의 소원을 풀어 주옵시니 전하를 하직하고 조선을 떠나가오니 복 망 전하는 만수무강하소서.”

하고 공중에 올라 표현히 날거늘 상이 그 재주를 못내 칭찬하 시더라. 이후로는 길동의 폐단이 없으며 사방이 태평하더라.

— 허균, 「홍길동전」 —

\* 집수유체 :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림

47. 위 글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상은 길동의 말을 신뢰하고 있다.
- ② 길동은 신하의 도리를 지키고 있다.
- ③ 신하는 길동의 힘을 빌려 도적을 소탕하려 한다.
- ④ 길동이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킨 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 ⑤ 감사는 혈육의 정보보다 자신의 임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48. ㉠~㉣ 중 <보기>의 내용이 나타난 것은?

<보 기>

고전소설의 특징 중 하나가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인데, ‘전기적(傳奇的)’이라는 말은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 진기한 것 - 일상적·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 - 을 허구적으로 짜 놓은 것을 말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위 글이 <보기>의 내용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이라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좁고 인재가 드물게 나서 예부터 걱정 거리였다. 더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재 등용의 길이 더 좁아져서 대대로 명망 있는 집 자식이 아니면 좋은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바위 구멍과 띠풀 지붕 밑에 사는 선비는 비록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억울하게도 등용되지 못한다. 과거에 합격 하지 않으면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하고, 비록 덕이 훌륭해도 과거를 보지 않으면 재상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 ① 무능한 관리들의 모습을 통해 백성을 위한 정치가 필요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군.
- ② 길동을 잡을 인물이 없다는 것을 통해 나라의 인재가 없는 현실을 그리고자 한 것이군.
- ③ 조선을 떠나며 상에게 하는 길동의 말을 보니 인재 등용의 현실과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 것이군.
- ④ 길동의 소원을 들어주는 상의 모습을 보여주어 백성을 사랑 하는 군주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군.
- ⑤ 관직에 오르고자 하는 길동의 노력을 통해 신분 제도를 없애 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려 한 것이군.

50. ㉠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등하불명(燈下不明)                      ② 망연자실(茫然自失)
- ③ 마이동풍(馬耳東風)                      ④ 순망지한(唇亡齒寒)
- ⑤ 주마간산(走馬看山)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